

발행처: KIC 중국

전화: +86-136-8309-8080

센터장: 고영화

메일: yhk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 중국’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차이나텔레콤, 100 개 파트너와 IoT 생태계 조성 통한 조 단위 시장 선점 기회를 맞이하다 (2017.2.4, 전경망)
- ▶ 2017 년 신 비즈니스 기술 발전의 10 대 동향 (2017.2.3, Sohu 과기)
- ▶ 2016 년 새로 등록된 기업 552.8 만 개, 동기대비 24.5% 증가 (2017.1.19, 경제일보)
- ▶ 무인자동차의 "창업 황금 시대" (2017.1.19, 왕이신문)
- ▶ IT 오렌지 주보: 1/23~2/5 까지 있었던 21 개 국내 투자 건 (2017.2.6, IT 오렌지)

주간 중국 창업 ISSUE

- ▶ 2016 년 중국 인터넷 창업투자국면 개관

금주의 스타트업 분석

- ▶ O2O 물류회사 – SD-Express(神盾快运)

금주의 중국 VC 소개

- ▶ LongLing Capital(隆领投资)

2 월 창업관련 Event Calendar

- ▶ 주요 Event 일정

KIC 중국 NEWS

- ▶ KIC 중국, 제 1 기 엑셀러레이션 참가기업 입주식

부록: KIC 중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중국 VC 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시 고려 사항

주간 중국 창업 NEWS

차이나텔레콤, 100 개 파트너와 IoT 생태계 조성 통한 조 단위 시장 선점 기회를 맞이다

(출처: 전경왕(全景网), 2017.2.4)

IoT 가 4G, 브로드밴드와 같이 통신업체 간에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근 차이나텔레콤은 북경에 100 여개 파트너사들을 초청하여 IoT 발전교류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취지는 중국 IoT 발전 현황 및 전망을 통하여 'eSurfing(天翼) Io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금번 행사에는 ZTE, Ericsson, Qualcomm, Microsoft 를 포함하여 정부, 교육, 의료위생, 금융 제조 등을 망라한 100 여개 협력사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차이나텔레콤 북경지사 총경리 장즈용(张志勇)은 현재 국내외 IoT 주요 역량을 보유한 IoT '파트너경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차이나텔레콤은 협력사들과 함께 IoT 블루오션에 주력하여 'eSurfing IoT'를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Surfing IoT 는 차이나텔레콤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며, 3~5 년 내에 기존 모바일 사업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동사는 IoT 플랫폼 구축, 전용제품 출시, 상위산업 육성 촉진 및 업종 주력을 통하여 IoT 산업을 키울 예정이다.

IoT 산업발전은 나머지 중국 2 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에게도 중요한 전략이다. 차이나모바일은 2006 년 충칭에 'M2M 전국 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12 년 차이나모바일 IoT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IoT 전용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2015 년 7 월에 IoT 플랫폼을 공식 런칭하였으며, 회장인 왕샤오추(王晓初)는 지난해 개최된 <세계 IoT 운영업체 정상회의>에서 산업체인의 조속한 행동을 통한 '글로벌일체화 서비스연맹'을 결성하여 IoT 및 IoT 서비스의 One point Docking 의 전세계 서비스 실행을 제안하였다. 글로벌하게는 AT&T, Verizon 등이 IoT 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IT 리서치 업체인 Gartner 는 2020 년 세계 IoT 단말기 수가 250 억대 이상 보급되면서, 매출은 3,000 억 USD 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2016 년 중국 IoT 시장규모는 이미 1 조 RMB 에 근접하고 있으며, 복수의 조사기관들은 향후 몇 년간 중국 IoT 산업의 성장속도는 전세계 선두를 달리면서 연평균 30%에 달하여 2018 년 시장규모가 1.5 조 RMB 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 덕에 수 많은 창업자들이 IoT 산업에 몰리고 있으며, 통신업체는 기반시설, IoT 전용망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합작 형식의 요금관리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IoT 는 아직 스타트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통신사들과 관련기업들이 IoT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국의 발전현황은 선진국과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체인에서 IoT 산업의 규모 형성은 아직 많은 난관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1. 기술 경쟁력: 가령 센서의 경우, IoT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나, 대부분의 고급센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 중국 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주목하고 합당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기술 표준화 정립을 통한 속도제고: IoT 산업 전망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고집하면서 업계 전반의 발전속도를 지체시키고 있다. 초기 거액투자금의 빠른 회수와 상호 연결된 IoT 기반 확립을 위해서도 각 회사들의 표준화 정립 노력이 필요하다.
3. IoT 응용시장의 육성과 지원: 신기술 산업인 IoT 는 연구개발에서 양산까지 긴 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확립을 통한 산업체인 내 기업들 각자에게 수익이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7 년 신 비즈니스 기술 발전의 10 대 동향 (출처: Sohu 과기(搜狐科技), 2017.2.3)



TianXing Capital(天星资本)에서 전하는 2017 년 신 비즈니스 기술 발전의 10 대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기술 및 가상 현실 기술의 융합 발전:** 현재 그래픽처리 장치(GPU), 신형 디스플레이, 휴먼 인터랙션 및 스마트 기술의 융합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현실 기술을 헬멧 또는 안경에 적용한 제품들이 실현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소니 등 글로벌 기업 외에도 바오핑잉인(暴风影音)과 같은 중국 로컬업체들도 게임, 엔터, 교육 분야에서 가상현실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
2. **자연언어이해(NLU) 기술의 성숙 발전:** 휴먼 인터랙티브 기술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간이 기계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지 결정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자연언어이해 기술은 이미 핸드폰, 자동차 등 사람의 손에 닿을만한 단말기에 적용되었으며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 **자율주행 분야의 성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 만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현재,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탄생하였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자율주행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행을 하는 동시에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4. **정밀 의료 및 빅데이터가 의료 업계 발전의 원동력:** 정밀의료는 사람들의 의료에 대한 초점을 증상 식별에서 병을 치료하는 체계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확대시켰다.
5. **합성식품 및 세포농업이 주류로:** 전 세계에 온실가스 배출, 기후 변화, 동물 식품 반대와 관련된 슬로건이 이어지면서 인류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 가공을 통해 고기를 먹는 듯한 체감을 주는 식품인데, 2017 년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식품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해양양식업이 최종 '블루오션 전략'으로:**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류는 이미 척박해지고 메마른 토지에서 더 많은 식물들을 키워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바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역, 어패류의 양식, 개방수역 어업 양식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할뿐더러 농경지, 물, 농약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인이어 인터페이스,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을 보유한 서비스 체험:** 80 년대부터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스크린의 피로도와 더불어 자동차, 가구 등 다양한 임베디드 기술로 인해 인류의 시각을 넘어선 신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8.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 르완다에는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드론 공항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드론 배송은 이전에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던 구조 활동을 일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9. **스마트 건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 건축물 및 고속도로도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다. 재료 과학자 및 건축가들은 이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시멘트를 개발하거나 온도 조절 장비 없이 바람과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건축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방식을 실현해내고 있다.
10. **소프트로봇의 등장:** 이전까지 딱딱한 금속재질로만 만들어진 로봇과 달리, 향후 몇 년 뒤엔 유전체 성질을 가진 전자 액티브 폴리머(electro-active polymers), 유전성 탄성체(dielectric elastomer) 등 신소재를 활용하여 사람 인체 피부와 비슷한 느낌의 소프트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2016 년 새로 등록된 기업 552.8 만 개, 동기대비 24.5% 증가

(출처: 경제일보(经济日报), 2017.1.19)



법인등록제도를 뜻하는 상사제도(商事制度) 개혁과 혁신과 창업을 의미하는 '쌍창' 트렌드에 따라, 중국 개인사업자와 기업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공상총국(中国工商总局) 통계에 따르면, 2016 년 중국에 새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수는 총 1,651.3 만 개로 동기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4.51 만 개가 새로 등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중 연간 신규 등기 기업의 수는 552.8 만 개로 동기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 평균 1.51 만 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공상총국의 신문 대변인 위파창(于法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를 작년부터 시행된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证合一、一照一码)' 개혁과 '양증정합(两证整合)'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전자는 공상 영업집조, 조직기구 코드증, 세무등기증 3 개의 증서를 하나로 통일하는 제도를 기초로 하여 사회보험등기증 및 통계등기증까지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후자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업집조 및 세무등기증을 통합한 정책을 일컫는다. 기업명칭 자체신고제도, 기업등기 전자화 등의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창업자들이 개혁에 따른 편리함을 체험하고 있다.

2016 년에는 대중창업공간, 인큐베이터 등 신흥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 태세를 보였는데, 그 수가 각각 동기대비 47.3%, 40.9% 증가하며 혁신 창업을 위한 양호한 발전 환경이 제공되었다.

공상총국에서 실시한 <영세기업 연도별 활성화 조사(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全国百县万家新设小微企业周年活跃度调查)>에 따르면, 2015 년 4 분기 새로 설립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영세기업의 발전이 총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연간 개업률이 70.8%에 달하였다. 해당 수치는 2015 년 2 분기, 3 분기에 새로 설립된 영세기업의 개업률보다 2.0%p, 0.9%p 높은 수치이다. 이는 신규 설립된 영세기업이 구인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개업 초기 평균 근무자가 6.6 명에서 1 년 후 평균 근무자 수가 7.7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계 내에 '잉여 생산력 해소'의 업무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다. 2016 년 강철,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 생산력 과잉 6 개 분야 중, 총 3,063 개의 기업이 등기말소(注销) 되었었는데 이는 동기대비 39.3% 하락한 수치이다. 영업정지(吊销)된 기업의 수는 총 2,375 개로, 해당 수치는 전년도 대비 3.3 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강철과 석탄 부분은 각각 4.7 배, 2.2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 및 시장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력 과잉 산업의 신규 등록 기업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 작년 한 해 새로 등기된 기업 수는 7,421 개로 동기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석탄과 강철 분야는 15.4%, 5.2% 증가하였다.

무인자동차의 "창업 황금 시대" (출처: 왕이신문(网易新闻), 2016.01.19)



2017 년 1 월, CES 2017 에서 중국의 UISEE(驭势科技)가 자체 개발한 첫 자율주행 전기차(EV) Urban Mobile Box 를 선보였다. 이는 UISEE 가 설립된 지 10 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이뤄낸 성과이다. DeepGlint(格灵深瞳), SinovationWork(创新工场), Zhenfund(真格基金), 시커엔젤(西科天使), Cyanhill Capital(青山资本)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사는 2017 년 자율주행 솔루션의 상업화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향후 2 년 내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사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한 차

량용 슈퍼컴퓨터를 통해 센서, 위치탐지, 항법 및 제어 등을 비롯한 자율주행 솔루션만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원가 자율주행의 상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밀리파 레이더, 초음파 레이더 및 저원가 GPS 등 현재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동사의 솔루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자체 개발한 머신 비전 솔루션¹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2015 년 설립된 idriverplus(智行者科技)는 작년 11 월 21 일 자율주행 자동차의 L-3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여 G1 경-하(북경-하얼빈) 고속도로를 통해 북대하(北戴河)까지 도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Icedrink(饮冰科技)는 Lidar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현재 구글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Velodyne 사의 Lidar 는 단가가 7 만 USD 에 육박하는데, Icedrink 는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 맞춤형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러스(乐视)는 Faraday Future 와 공동으로 FF91 을 출시하였는데,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후면 카메라 시스템, 자가 학습 등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당 모델을 테슬라의 Model X 와 비교하였다.

바이두의 경우, 2013 년부터 무인자동차 개발을 시작하여 2015 년 북경에서 최초로 도시 혼합 상황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였고, 2016 년 11 월 우전(乌镇)에서 개최된 제 3 회 월드인터넷컨퍼런스에서 바이두 무인자동차의 공개 체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바이두의 창립자 리엔홍(李彦宏)은 향후 회사 주력 사업을 인공지능 연구개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년 10 월 개최된 2016 항저우 원치 컴퓨팅 컨퍼런스(杭州·云栖大会)에서 "호박차(南瓜车)"라는 이름의 자율주행차가 전시되었는데, 이는 idriverplus(智行者科技)가 개발하였으며 중국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저속 자율주행 전기차이다. idriverplus 의 CEO 장더야오(张德尧)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이미 시장 수요에 부합하였으며 주로 관광지의 셔틀, 특정 단지의 물품 배송, 특수 작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년 12 월, Tusimple(图森互联)은 당산(唐山)시 차오페이띠엔(曹妃甸)구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17 년 6 월부터 차오페이띠엔구에서 자율주행 트럭의 도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 월부터 첫 고속도로용 자율주행의 상업화 시범 운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Tusimple 의 CEO 천모(陈默)는 자사의 자율주행을 통한 화물 운송이 고속도로를 포함한 제한된 구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밝히며,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전자가 직접 주행하면 되기 때문에 한 차량(트럭)에 한 기사만 탑승하면 되어 인건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¹ 머신 비전 솔루션: 머신 기반의 비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솔루션

IT 오렌지 주보: 1/23~2/5 까지 있었던 21 개 국내 투자 건

(출처: IT 오렌지(IT 桔子) 2017.2.6)

IT 오렌지(IT 桔子)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금주(1.23 - 2.5)에는 12 개 분야에서 총 21 건의 국내 투자/합병 건이 발생하였다. 자동차교통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생활서비스, 금융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한 주간 발생한 주요 투자 건에 대한 요약이다.

■ 자동차교통

2 월 4 일, Carwins(车赢科技)는 FosunKinzon(复星昆仲资本)으로부터 수천만 RMB 규모의 Series A 투자를 받았다.

4S 자동차 판매상 중고차 업무 솔루션 서비스 업체인 동사는 SaaS 정보화 시스템 및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채널의 4S 점포를 위한 ERP 시스템, CRM 시스템 및 모바일 App 운용 통합 기반의 중고차 테스트, 평가, 거래 서비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판매망 확충, 중고차 관련 서비스 및 자원 통합 및 동사 지불 시스템인 Carwins Pay(车赢拍)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외 금주에는 동분야 3 개 업체가 Pre-A, 전략투자를 유치하였고, 신삼판 등록을 완료하였다.

■ 문화/엔터테인먼트

2 월 1 일에는 Toutiao(今日头条)는 전액 출자로 미국 모바일 단편 동영상 플랫폼 Flipagram 을 인수하였다. 데이터 발굴 기반의 추천엔진을 제공 중인 동사는 모바일 App 플랫폼을 통하여 유저 개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연결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 년 출시되어 37 개 언어로 제공하는 동영상 제공 플랫폼인 Flipagram 은 Instagram 에 업로드 가능한 1 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유저가 직접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동사는 Flipagram 인수를 통하여 운영인력을 인수함과 동시에 Flipagram 의 동영상 콘텐츠를 동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금주에는 동분야 1 개 업체가 수천만 RMB 규모의 A+ 투자를 유치하였다.

■ 하드웨어

1 월 26 일, Flexwarm(飞乐思)은 북경베이광웬즈거화기금(北京北广文资歌华基金) 주해쌍예잉하오기금(珠海双叶英浩合伙基金)으로부터 2,000 만 RMB 규모의 Series A 투자를 유치하였다.

후막기술(Thick film technology)의 연구개발, 생산 및 응용에 주력하는 신재료 하이테크 기업인 동사의 핵심 기술은 열전도 신재료이다. 고분자, 고열전도 나노물질은 강력한 복합성을 가져서 각종 특성의 취합이 가능한 동시에, 온도센서, 압력센서, 발열, 전자기 차폐 등의 기술을 발열보온 의류, IoT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동사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을 통하여 전자동 생산라인 실현과 판매망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의료건강

1 월 26 일, 의약연구개발회사인 Connet(康乃德)는 Qiming Venture Partners(启明创投) 주도 하에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北极光创投), Longpan Capital(龙磐投资) 및 Cowin Venture(凯风创投)로부터 2,000 만 USD 규모의 Series A 투자를 유치하였다.

2012 년 설립된 동사는 자체면역 질병 및 암세포 면역조절 신약 개발 치료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자사 제품의 1 기 임상실험을 무사히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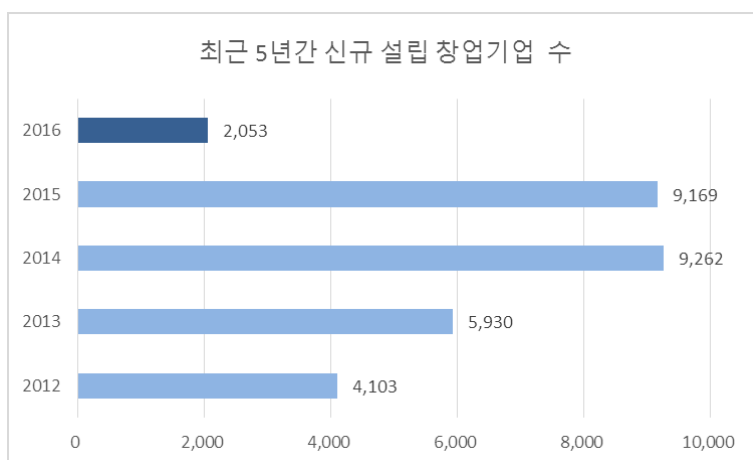
그 외 금주에는 동분야 1 개 업체가 1,100 RMB 규모의 Angel 투자를 유치하였다.

주간 중국 창업 ISSUE

2016 년 중국 인터넷 창업투자국면 개관 (IT 오렌지(IT 桔子), 2017.1.21)

1 월 21 일 중국의 저명 스타트업 매체인 IT 오렌지(IT 桔子)에서는 작년 한해 중국 내 신규 설립된 IT 관련 창업기업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T 오렌지에서 집계한 48,353 개 스타트업 중 2,053 개 기업이 2016 년 설립된 회사로 2016 년 동 기관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기업 중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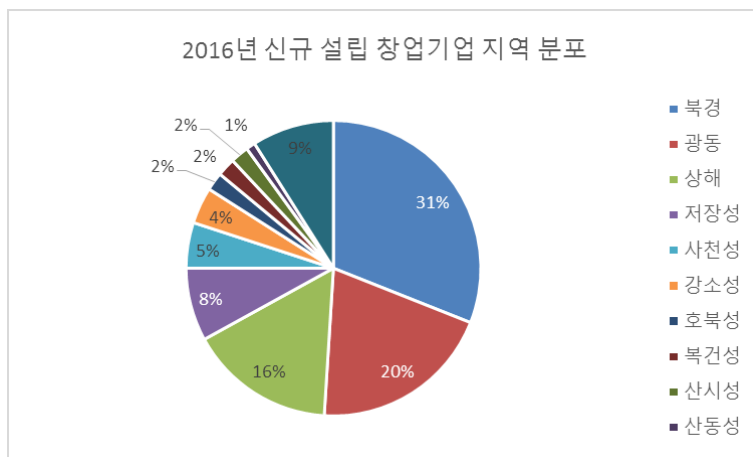
1. 창업추세의 냉각기



여주는 결과이다.

2016 년 말까지 IT 오렌지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48,353 개 중국 스타트업 중에서 2016 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체는 26,320 개이며, 그 중 2,053 개 업체가 2016 년에 새롭게 설립된 회사이다. 이는 지난 5 년간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2015 년 대비 1/4 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관이 파악한 데이터가 전체 모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창업분야의 불황이 심각함을 충분히 보

2. 창업지도: 북경, 상해 광동이 Top 3, 뒤를 이은 절강성, 사천성, 강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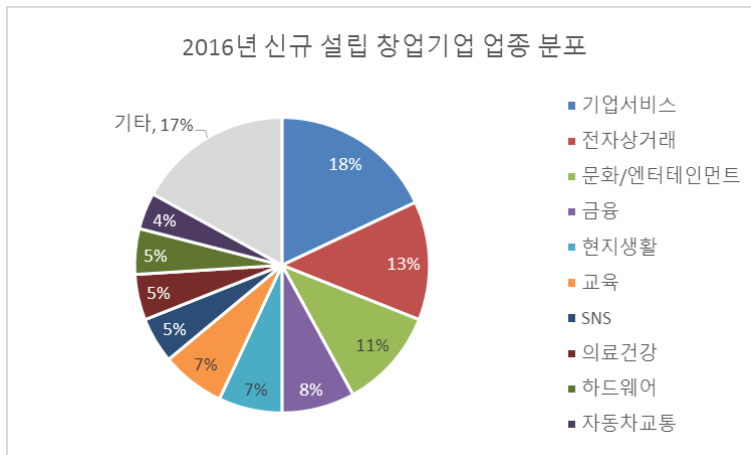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6 년 역시 전 년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광둥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 수가 상해를 추월하여 2 위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경, 상해 광동에 설립된 신규 기업은 전체의 약 68%를 기록하면서 2015 년 72%, 2014 년 73%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 본격화 되면서 각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함에 따

라 기타 지역에서의 기업 신규 설립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절강성, 사천성, 강소성 내 설립 기업 수가 전체의 17%를 차지하면서 상해지역 내 설립된 스타트업 수를 추월하였다. 향후 지방 정부의 지원책이 진행됨에 따라 Top3 의 집중도가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업종분포: Top 3 를 차지한 기업서비스, 전자상거래, 문화/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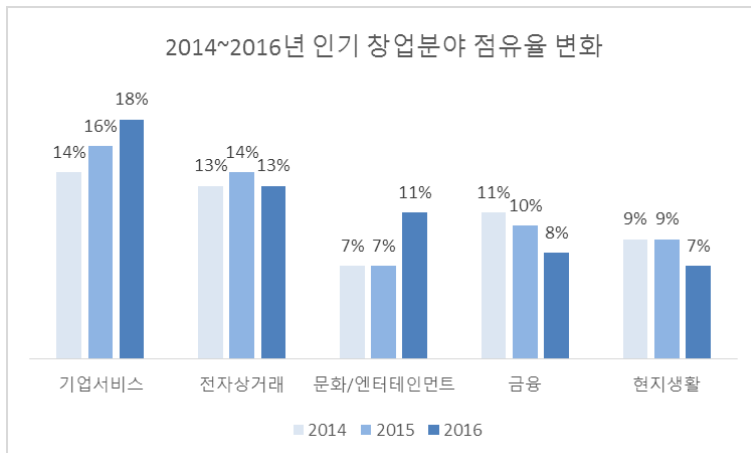


2016 년 신규 설립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각광받았던 창업분야는 기업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였다. 이들 분야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AI,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의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기술을 활용한 해당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작년 한해 인터넷 생방송, IP 분야의 붐에 힘입어 3 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로컬 라이브 생방

송 관련 창업의 경우 O2O 모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하여 하락 추세를 보였다.

4. 업종별 트렌드 분석



2015 년 하반기부터 VC 들의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신규 스타트업의 수는 급격히 줄기 시작하였다. 다만 불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래에는 각 업종별 분석을 통하여 2016 년 인기 창업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기업서비스

2014 년부터 GDP 성장률의 둔화, 인구 증가세 감소 등의 요소로 인하여 기업들은 운영효율 제고와 인건비 절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지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해당 기술을 활용한 기업서비스 분야 역시 빠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해당 분야에 1,503 개 기업이 설립되면서 창업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자본불황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2016 년 해당분야에는 364 개 기업이 신규 설립되었다. 다만 기업서비스 스타트업의 점유율은 전체의 18%를 차지하면서 전년도에 비하여 점유율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전자상거래

IT 오렌지 데이터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창업자들의 지속적인 각광을 받아왔던 분야로 최근 5년간 2위를 수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더욱 다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패션 악서서리, 식품 등의 분야를 넘어서 예술품, 드론, 공정거래제품, 물물교환, 맞춤형 주문, 임대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쇼핑경향에 따른 모습으로 추측된다.

■ 문화/엔터테인먼트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는 미디어, 동영상, 영화 TV, 종합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형태가 포함되며 중국의 거대한 인구규모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급격히 성장을 거듭하였다. BAT 를 위시한 IT 대기업, VC, 각종 상장회사들이 관심을 나타내면서 1 조 시장의 선점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WeChat 공중계정 등 We media 는 2016 년 투자자들의 큰 인기를 불러모았으며, Inke(映客), Huajiao(花椒), Quanmin(全民) 등 대형 생방송 플랫폼들이 거액의 투자를 받은 가운데 웹드라마, IP, 인터넷스타(왕홍) 등이 작년 한해 큰 인기를 불러 모았다.

이에 따라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점유율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R/VR 기술의 발달과 경제, 과학지식, 유행정보, 시사평론 등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향후 전망 역시 밝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

2016 년 초부터 인터넷금융은 P2P 대출에 집중된 업계에 커다란 조정이 이루어졌다. Fyfe(泛亚), eZubao(e租宝) 등 338 개 P2P 플랫폼이 도산하였고, P2P 위주의 인터넷 대출 및 수신 상품도 시장의 질타로 인하여 쇠락하는 양상을 띠었다.

2016 년 금융분야의 경우 기존의 재테크, 대출 등의 분야 보다는 보험관련 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해당분야의 57%를 점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보험 플랫폼, 농업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 현지생활

현지생활 분야는 기술 진입장벽이 낮고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한 특징을 보인다. 2014 년 O2O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해당분야에 창업자들이 급속히 모이기 시작하였지만, 2015 년 O2O 분야의 투자가 감소하고, 많은 서비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를 보이면서 시장의 열기는 이성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신메이다(新美大) 등 대형 플랫폼이 2016 년에 1 억 RMB 의 거액 투자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기타 중소기업들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였다. IT 오렌지 데이터에 따르면 2016 년 해당분야 신규 설립회사는 139 개로 전년도의 1/5 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 역시 극심한 위축을 보였는데, 2016 년 신규기업의 겨우 27%만이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

■ 하드웨어

AI, AR/VR 등 2016 년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2016 년 해당 분야 신규 설립 기업의 45%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1 위를 기록하였다. 투자유치는 Angel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은 로봇(가정, 물류, 상업 및 로봇기술 관련 솔루션), 드론, AR/VR, HUD 제조업체였다.

■ 스포츠

2014 년 말 국무원에서는 전국민 체육활동을 국가전략으로 지정하는 문건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스포츠 분야는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16 년 신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성공률은 43%를 기록하면서 하드웨어 분야에 이어 2 위를 기록하였다. 티켓판매, 스포츠 IP 등 광범위 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투자성과로는 경기 운영분야의 제 1 체육오락(第一体育娱乐), Hero Sports(英雄体育), 스포츠 경기 생방송 플랫폼인 바오팡체육(暴风体育) 등이 1 억 RMB 규모의 Series A 투자유치를 성공이다.

금주의 스타트업 분석

O2O 물류회사 – SD-Express(神盾快运)



기업명	와레이라데이터기술(상해)유한공사(瓦雷拉数据技术(上海)有限公司)
설립일	2014. 8
등록자본금	1,041 만 RMB
소재지	上海市郭守敬路 498 号上海浦东软件园 22 号楼 2009 - 2011
비즈니스 모델	화물 운송 O2O 서비스 플랫폼
주요 연혁	2014 년 11 월, 1,000 만 RMB 규모의 엔젤 투자 유치 2015 년 10 월, 시라무자산(西拉姆资产)으로부터 수천만 RMB 규모(약 2,000 만 RMB 로 추정)의 Series A 투자 유치
홈페이지	www.sd-express.net

■ 기업소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 O2O 방식을 통해 도시 내 쾌속 배송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실패요인 분석

대량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

신선식품 저장을 위해 고가의 냉동창고를 건설을 시도하였다. 상해에서 소형 냉동창고 1 대를 한 달 임대하는데 약 1 만 RMB 가 넘는 비용이 청구되는데, 회사 운영초기에만 20 개가 필요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매일 약 6,000 개의 주문량을 확보해야만 손익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예측 수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인건비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비용을 잡아 먹는' 냉동창고로 전락해버렸다.

2B 사업의 한계

도시 내 배송 업무 매출의 약 70%가 2B(To Business) 업무로부터 창출되는데, 인력 교육 비용이 높아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렵다. 또한 2B 고객 특성 상, 즉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차후에 지급하는 채권 형식이 대부분인데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손실을 기록하였다.

과도한 출혈 경쟁

CEO 장시룡(张喜龙)은 동종 업계의 경쟁사인 Lanxiniu(蓝犀牛)과 보조금 전쟁을 할 때, 보조금을 객단가의 15 배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지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전에 투자를 유치했던 투자사 시라무자산 역시 CEO 장시룡이 설립한 자산관리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는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동사는 2015 년말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지만, 2015 년 연말은 이미 O2O 분야에 대한 투자 흑한기에 접어들면서 2016 년 1 월 18 일 기업 청산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공표하였다.

금주의 중국 VC 소개

LongLing Capital (隆领投资)



기업명	롱링투자고분유한공사(隆领投资股份有限公司)
설립년도	2012. 10. 31
소재지	厦门火炬高新区软件园华讯楼 A 区 1F-B1
자금규모	-
주요투자분야	전자상거래, 기업서비스, 게임/애니 등
홈페이지	http://llc.uunn.cn

■ VC 소개

Longling Capital 의 창립자 차이원성(蔡文胜)은 과거 구글에게 인수 합병된 웹 브라우징 서비스 업체 '265'와 중국 최대의 사진 편집 툴 '메이투슈슈(美图秀秀)'를 설립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엔젤 투자자 중 한명이다. 창립자를 비롯한 동사 핵심 관리 인력들은 중국 인터넷 유저들의 행위 동향 및 인터넷 제품과 관련된 독자적인 이해도와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광범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인터넷 혁신 창업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다.

중국 창업 관련 DB 업체 Cyzone(创业邦)의 데이터에 따르면, 동사의 주요 투자 단계 분포는 Seed 8.11%, Angel 48.65%, A 단계 40.54%, D 단계부터 Pre-IPO 가 2.7%이다. 또한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업서비스, 게임/애니, 콘텐츠, 모바일 인터넷, 여행, 하드웨어, 금융 순이다. 투자금액은 주로 수백만 RMB 수준이지만 1 억 RMB 규모의 투자까지 참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공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업무 성과로 보았을 때 2013 년도, 2014 년도 및 2015 년 1-8 월에 각각 -2,987 만 RMB, 3,535 만 RMB, 1 억 4,321 만 RMB 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으로 각각 -3,041 만 RMB, 3,240 만 RMB, 1 억 3,676 만 RMB 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5 년 8 월까지 총 46 건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총 투자규모는 1.31 억 RMB 이다. 성공적으로 Exit 을 마친 포트폴리오로는 광저우위찌엔과기(广州遇见网络科技), 샤먼하이샤세기정보(厦门海峡世纪信息), 샤먼메이투과기(厦门美图网科技), 샤먼메이투모바일과기(厦门美图移动科技) 등이 있다.

동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이미 Exit 에 성공한 케이스의 총 내부수익률(IRR)은 93.54%이며, 자체 밸류에이션을 통해 밝힌 종합 내부수익률이 83.82%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중국 신홍 증시 신삼판(新三板) 및 전략신홍판(战略新兴板)에 상장 심의 단계에 있다.

서민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밝힌 창립자 차이원성은 투자를 집행할 때 창립자의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서비스의 유저 규모를 중요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투자 시에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인력 및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

게임/애니

기업	사업영역	투자금	투자단계	공동 투자자	투자일시
	随身玩 미니게임 소통 플랫폼	수천만 RMB	A	Forgame TAHOE VC(太浩创投)	2015.06.12
	4399 游戏网 온라인 캐주얼 오락 플랫폼	수백만 RMB	엔젤	-	2009.05.12
	动网先锋 웹게임 연구개발	7,000 만 USD	엔젤	-	2006.03.01

전자상거래

기업	사업영역	투자금	투자단계	공동 투자자	투자일시
	艺典中国网 예술품 관련 정보 플랫폼	2500 만 RMB	A	-	2016.09.27
	内啥 여행 장비 임대	수백만 RMB	엔젤	-	2016.06.30
	189MM 疯狂买 卖王 B2B 전자상거래	수백만 RMB	엔젤	-	2015.02.01

여행 및 생활

기업	사업영역	투자금	투자단계	공동 투자자	투자일시
	美聚乡村 농촌 여행	수백만 RMB	엔젤	-	2016.06.01
	欣欣旅游 종합 여행 서비스	Undisclosed	A	-	2010.01.01
	满乐卡 포인트 적립 플랫폼	수백만 USD	Pre-A	-	2015.10.21

기타

기업	사업영역	투자금	투자단계	공동 투자자	투자일시
	安好时代 동영상 제작 및 공유 플랫폼	수천만 RMB	A	평허투자(风和投资) CapitalNuts(坚果资本)	2016.04.21
	Wonderland 증강현실 게임 플랫폼	1500 만 RMB	Pre-A	Ultrpower Fund(泰岳梧桐资本) Chuxin Capital(初心资本)	2016.04.01
	会会达人 전문 분야 SNS 모바일 플랫폼	940 만 RMB	Pre-A	SinovationWork(创新工场) MatrixPartners China(经纬中国)	2015.12.04

2 월 창업관련 Event Calendar

주요 Event 일정

일시	행사명칭
2 월 6 일 월요일	광저우 연구산업네트워크 스마트인재 원탁회의 (광저우)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5370649456400
2 월 7 일 화요일	제 3 회 대형기업 정보운영 및 유지보수 정상회의 (하얼빈) 행사참조: www.huodongjia.com/event-70467852.html
2 월 8 일 수요일	Yabuli 중국기업가 포럼 2017 제 17 회 연회 (하얼빈, ~2/11) 행사참조: www.huodongjia.com/event-22341074.html
2 월 13 일 월요일	SBC 중국창업직통차 - 충칭 (충칭)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2371429170200
2 월 15 일 수요일	로드쇼 360(路演 360) 제 15 기 시드 및 엔젤투자 집중 로드쇼 플랫폼 (베이징)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5368569559500 중국-인도 기업협력 의제 원탁회의 (선전)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5369450066000 사물인터넷(IoT)을 이끄는 과학 혁신 (베이징)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3371434456100
2 월 16 일 목요일	중국-유럽 마이크로 포럼: 초음파 - 데이터 사유 포용 스마트 시대 (베이징)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7371329717700
2 월 18 일 토요일	스마트제품 2017 오프라인 채널 교류회 - 제 2 기 (선전)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8370601279900 2017 국제 디스플레이 기술 회의 (ICDT) (푸저우, ~2/20) 행사참조: www.huodongjia.com/event-9810054.html
2 월 19 일 일요일	2017 년 인터넷 철학자 컨퍼런스 (베이징) 행사참조: www.huodongxing.com/event/5370605999500
2 월 22 일 수요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만드는 금융 신 생태계 (상해) 행사참조: http://www.huodongxing.com/event/4368877347600

KIC 중국 NEWS

KIC 중국, 제 1 기 엑셀러레이션 참가기업 입주식

- 처쿠카페와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공동운영
- 제 1 기 프로그램 참여 6 개 스타트업 대표 참석

KIC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2 월 7 일(화) 오후 북경 중관촌 처쿠카페에서 제 1 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 개 기업들의 입주를 환영하는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화 센터장이 환영사를 낭독하였고, 주중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이승원 공사참사 및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공동주관사인 처쿠카페 량신웨이 총경리가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제 1 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 개 기업의 대표들의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본 행사에 중관촌 창업거리 글로벌 비즈니스 팀 레이샤오지위 간사 및 유관 기관 30 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입주 기업을 축하해주었다.

입주식에 참석한 1 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한국 스타트업은 (주)비주얼캠프, 해보라, 모모, 12CM, 엠소텍, 무빙키 총 6 개 기업이며, 각 기업은 1 분 피칭을 통하여 자사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하였다.

- 비주얼캠프: 시선추적형 VR HMD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해보라: 귀로 말하는 스마트 이어셋
- 모모: MNC /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 12CM: Echoss 스마트 스탬프
- 무빙키: O2O 모바일 인터랙티브 광고 솔루션
- 엠소텍: 자율주행자동차용 비회전 LiDAR 센서



주중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이승원 공사참사는 이날 행사 축하에서 "이제 창업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중 합작기업이 발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이 출현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KiC 중국(센터장 고영화)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국내 창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글로벌 혁신센터이다. KiC 중국은 자국민의 중국 현지 창업과 국내 창업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성공적 안착까지 전주기 맞춤형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정보 제공, 창업 교육,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과 중국 VC를 연계한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KiC 중국은 2016년 6월에 베이징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올해 2월 중에 창업공간을 중간촌 창업거리의 "처쿠카페"에 오픈하였다.

KIC 중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중국 VC 의 한국 스타트업 투자 시 고려 사항”

2017. 2. 8

주 최: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 KIC 중국

조 사 대 행: 9K research



1.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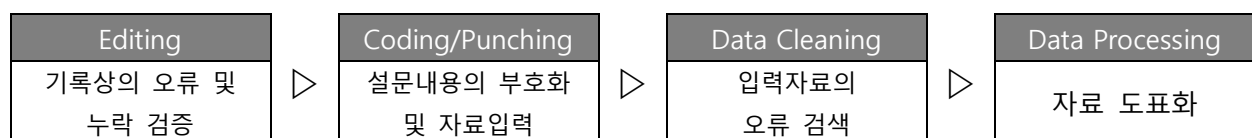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 VC 들의 의견과 이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 시 판단 기준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VC 의 주요 특성 파악
- 중국 VC 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의향 파악
- 중국 VC 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시 고려 사항 파악
- 한국 스타트업이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VC 의 피드백 수렴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1 월 18 일 09:30~17:30 중관촌 크라운 플라자 호텔 3 층에서 개최된 <2017 한중창업협력 포럼>에 참석한 중국 VC
표본크기	N=51
자료 수집방법	▶ 참석자에게 서면 설문지 배포 ▶ 연락처 배부를 통한 추가 온라인 설문지 배포
조사기간	2017 년 1 월 18 일 ~2017 년 1 월 25 일

3. 자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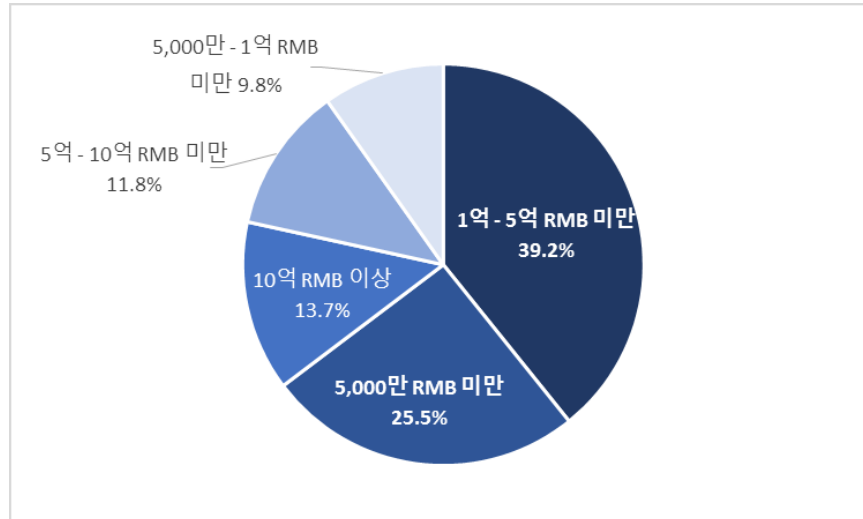


4. 주요 조사 내용

투자사 정보	■ 투자사 운용자금 규모 ■ 주요 투자 분야 ■ 한국기업 투자 경험 여부	■ 투자 포트폴리오 수 ■ 해외투자 경험 여부
한국 투자 의향도	■ 투자 의향 시기 ■ 투자 의향 규모	■ 투자 의향 단계 ■ 투자 의향 분야
투자 시 고려사항	■ 투자 시 고려사항	■ 투자 시 애로사항
의견 및 제안	■ 한국 기업의 장점 ■ 한국 기업에 제공 가능한 자원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실패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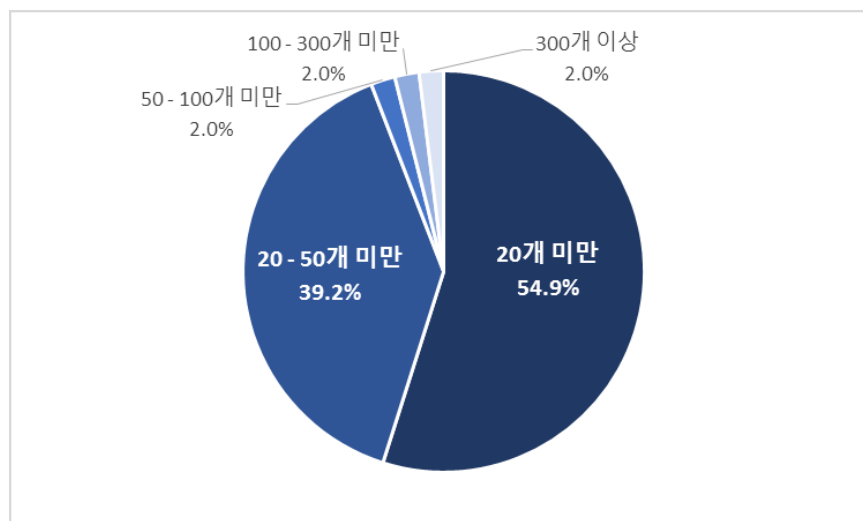
[제 1 부: 투자사 정보]

질문①: [단수응답] 귀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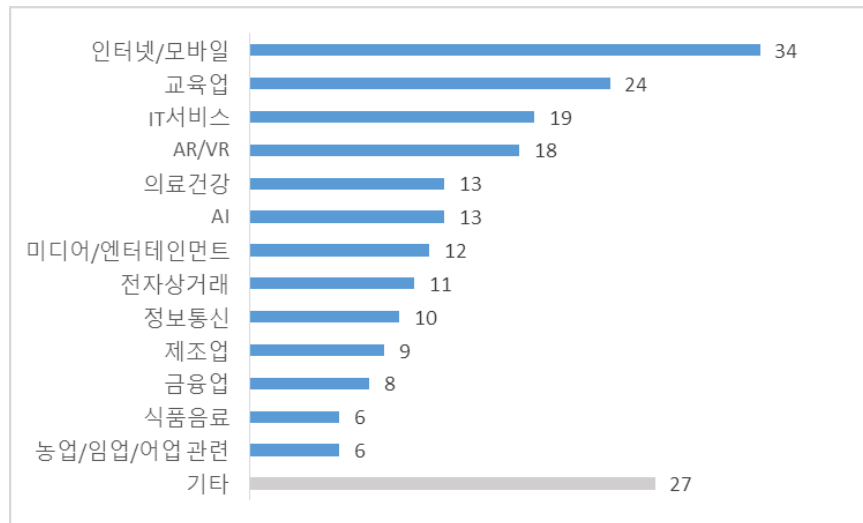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 참가한 중국 VC의 운영자금 규모는 1억-5억 RMB(170억-850억원) 미만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였고, 1억 RMB(170억원)이상의 운영자금을 운영하는 VC가 전체의 약 2/3 수준인 64.7%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 VC의 경우 펀드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등록펀드 중 약 57%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참고: The VC)

질문②: [단수응답] 귀사가 현재 투자한 회사 수는 몇 개입니까?



현재 투자한 스타트업이 20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4.9%, 50개 미만으로 확장할 경우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능한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보다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③: [복수응답] 귀사가 현재 투자한 주요 분야는 어디입니까? (N=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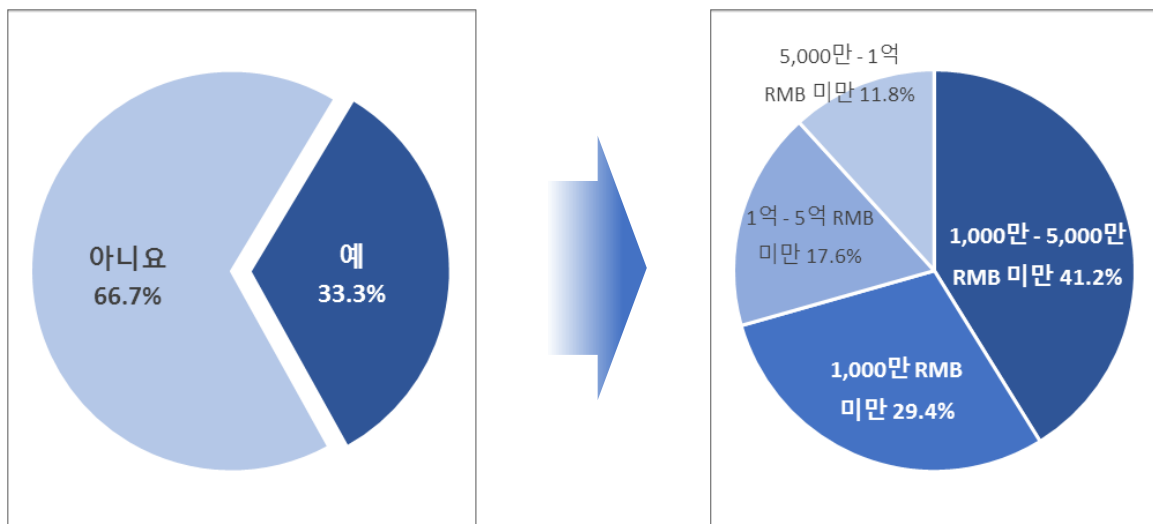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인터넷/모바일 업체 투자가 34 곳, 교육업 투자가 24 곳, IT 서비스 분야가 19 곳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 IT 서비스, 정보통신 등 ICT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였다고 응답한 수가 63 건으로 전체 응답의 30%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스마트 하드웨어, 센서, 사물인터넷 등에 투자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질문④: [단수응답] 귀사는 해외기업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④-1: [단수응답] ('예'라고 응답 시) 귀사가 해외에 투자한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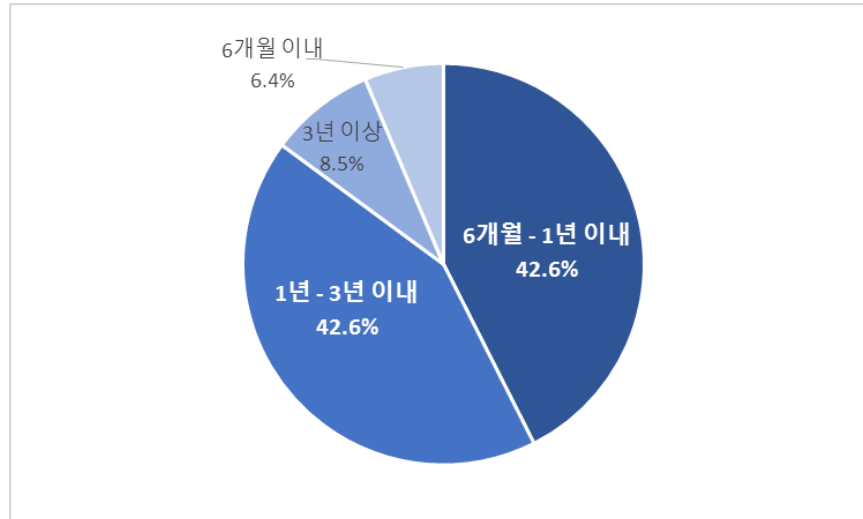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 참가한 VC 중 33.3%가 이미 해외기업에 투자를 단행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해외 투자 규모는 1,000 만~5,000 만 RMB(17 억~85 억원) 미만 투자가 41.2%를 차지하였다. 5,000 만 RMB(85 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2/3 을 넘어서는 70.6%를 기록하였다.

해외 기 투자하였다고 응답한 VC 중 2 곳이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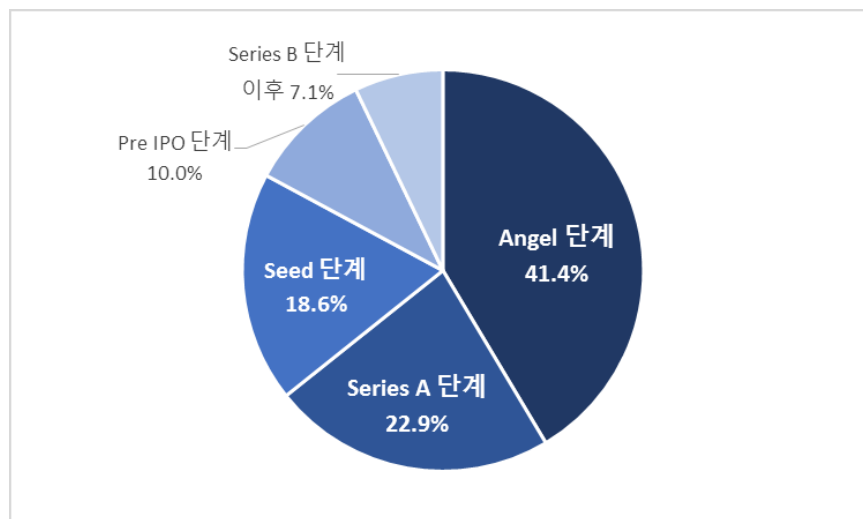
[제 2 부: 투자사 한국 투자 의향도 관련]

질문⑤: [단수응답] 귀사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한국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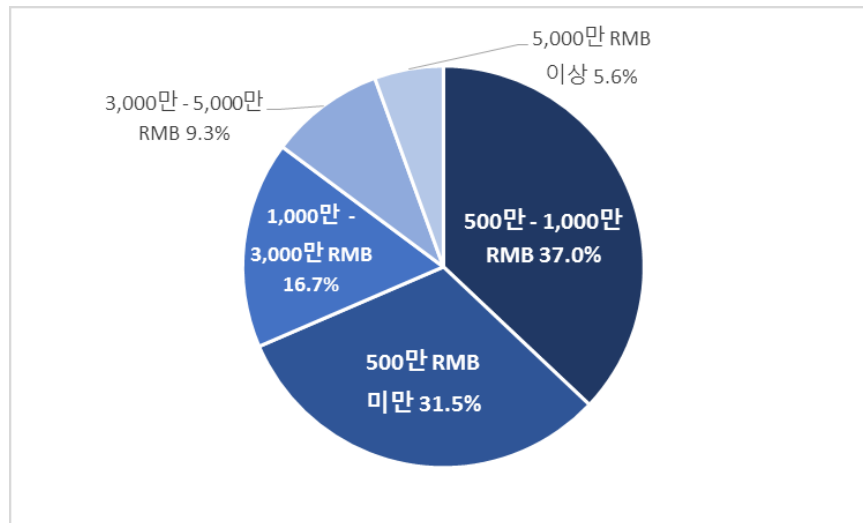
참석 VC의 42.6%가 조건에 맞을 경우 한국 스타트업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투자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이내 투자 의향을 가진 VC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문⑥: [단수응답] 귀사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 어느 투자단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41.4%가 Angel 단계의 투자를, 22.9%가 Series A 단계, 18.6%가 Seed 단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상 얼리스테이지로 불리는 Seed부터 Series A 단계까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VC가 총 82.9%로, 성숙기에 돌입한 기업보다는 초기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질문⑦: [단수응답] 귀사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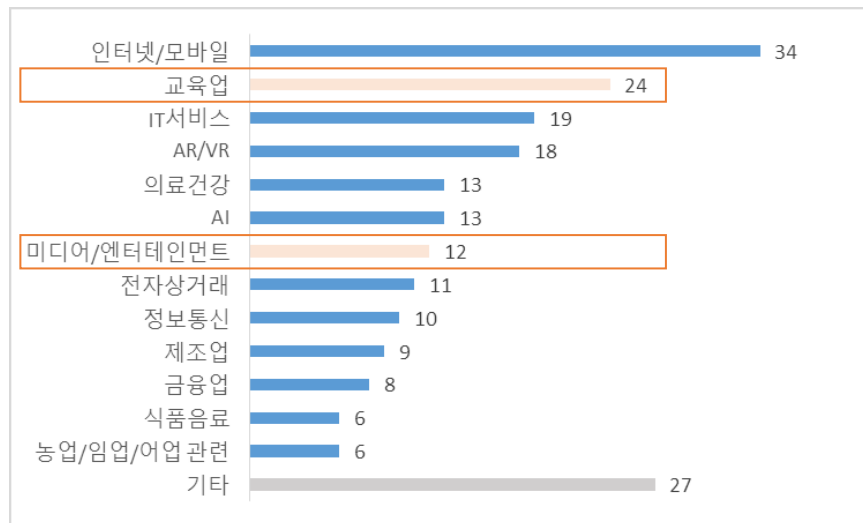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37%가 500 만~1,000 만 RMB(8.5 억~17 억원), 31.5%의 응답자가 500 만 RMB(8.5 억원) 미만을 투자하겠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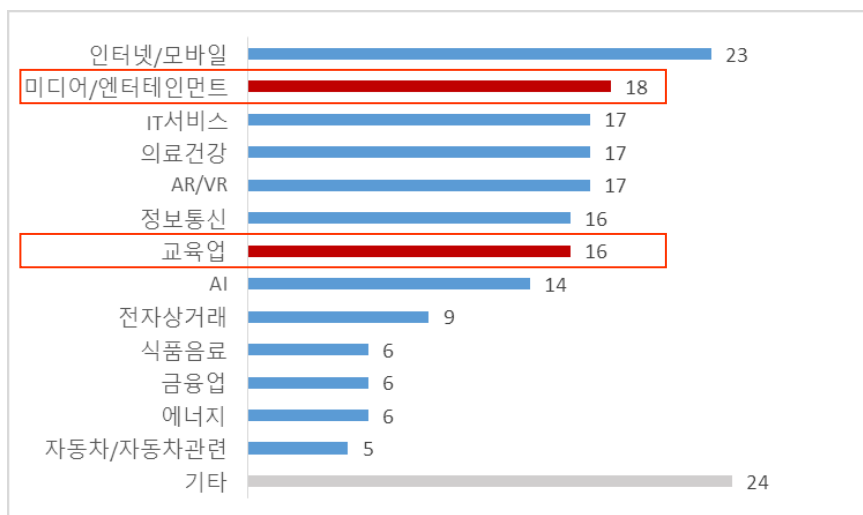
앞서 Angel 단계에 투자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57.2%가, Seed 단계 투자 의향을 밝힌 응답자 중 69.2%가 500 만 RMB 미만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질문⑧: [복수응답] 귀사는 한국의 어떤 분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N=194)

<질문③: 기존 보유 포트폴리오 현황 분포>



<질문⑧: 한국 투자 고려 분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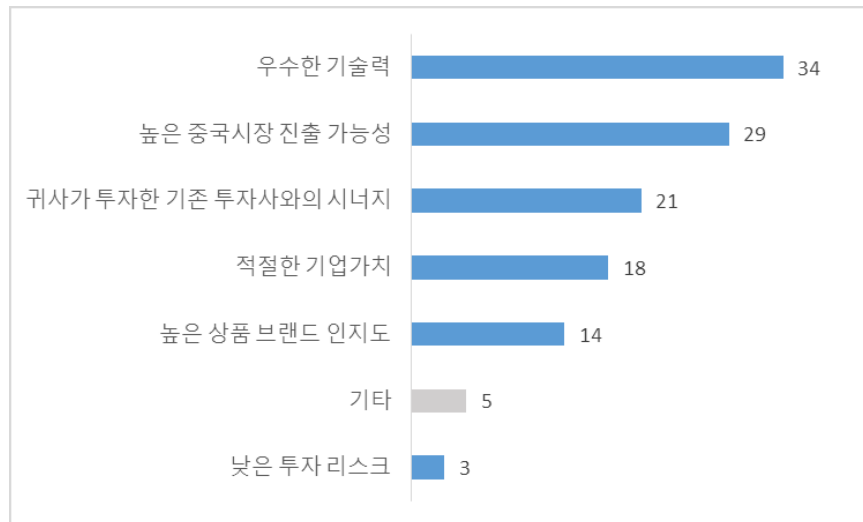


투자 우선 순위는 인터넷/모바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IT 서비스, 의료건강 분야 순으로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스마트 하드웨어, 게임, 기업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한 VC도 있었다.

앞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비교할 경우, 포트폴리오 중 2 순위인 교육분야에 대한 대 한국 투자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신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형상을 보이고 있다.

[제 3 부: 한국기업 투자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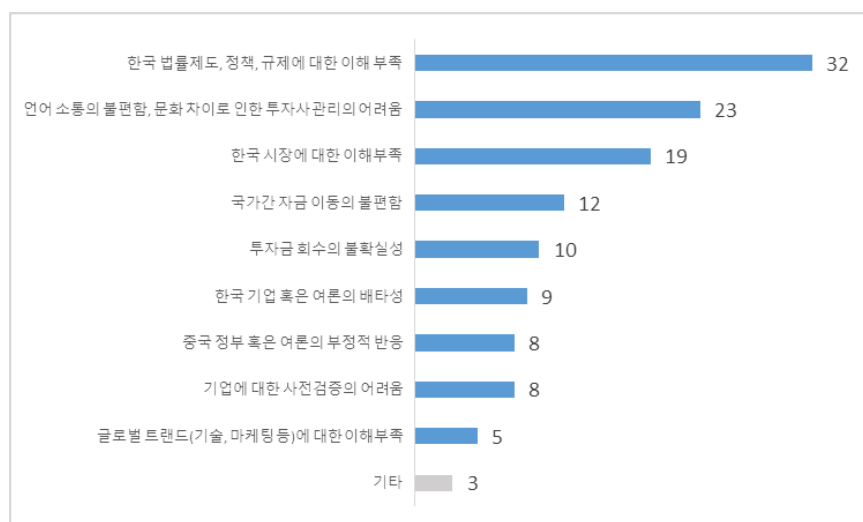
질문⑨: [복수응답] 귀사가 한국 기업에 투자 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N=124)



한국 기업에 투자를 고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수한 기술력 보유 여부, 높은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적절한 기업가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투자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Cash-flow 창출능력,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인수합병 여부 등을 언급하였다.

질문⑩: [복수응답] 귀사가 한국 기업에 투자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N=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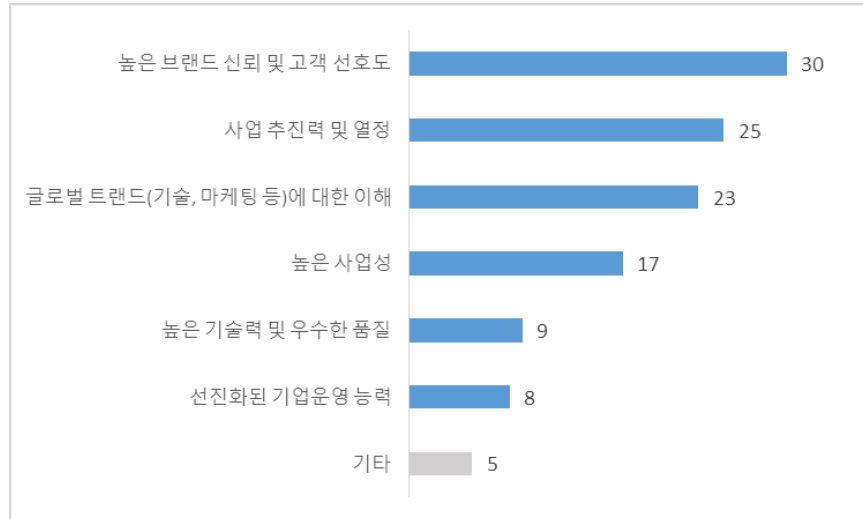


한국 법률제도, 정책,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답한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해, 사전 검증 어려움, 중국 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양국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꼽은 응답이 존재하였다.

[제 4 부: 투자사 의견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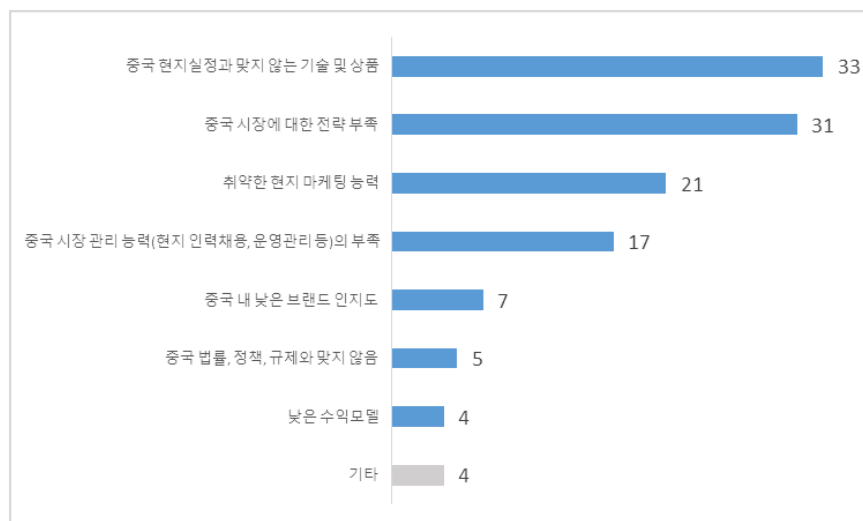
질문⑪: [복수응답]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가진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N=117)



설문에 응답한 VC 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장점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 및 고객 선호도, 사업추진력 및 열정,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해 순으로 뽑았다.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기업운영 능력, 기술력 및 품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원가 경쟁력이라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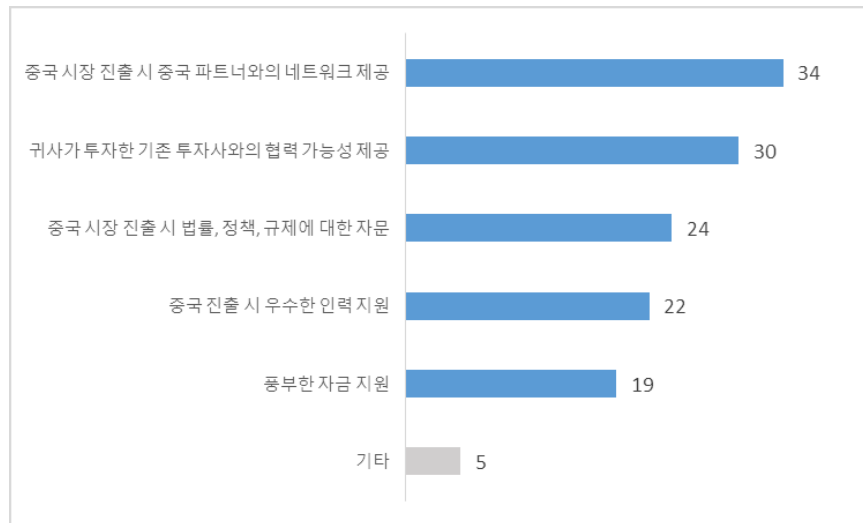
질문⑫: [복수응답]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실패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22)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중국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기술 및 상품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부족, 현지 마케팅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모델, 중국 법률/정책 등과 맞지 않아서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한 VC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중국 문화와 맞지 않음, 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응답도 있었다.

질문⑬: [복수응답] 귀사가 한국 기업에 투자 시 한국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N=134)



중국 시장 진출 시 네트워크 제공, 중국 법률/정책 규제에 대한 자문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자원제공,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